

시민의 문화 사랑방 '대학 공연장'

광주 지역 대학에 자리잡은 공연장들이 시민속으로 한 발 다가서고 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연을 유치하거나 일반 대관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문화 인프라가 좀 더 풍성해졌다. 대구 계명대나 영남대처럼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형 공연장이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알차게 운영되는 공간들이다.

광주시 서구 삼촌 사거리에 위치한 광주가톨릭대학교가 지난 1998년 나주로 이전하면서 이 공간은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활용중이다.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가톨릭 신자와 시민들의 교육장소로 활용되던 대건문화관을 리모델링을 거쳐 공연장(336석)으로 탈바꿈 시켰다.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자와 음향 시설 등을 교체하고 그랜드 피아노도 마련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0월 개관 연주회로 국악양상을 시나위 초청 연주회를 진행했고 지난 2월에는 독일에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이고르 그리신 독주회를 열었다.

오는 4월13일(오후 7시)에는 '부활, 봄맞이 특별 연주회'(무료 공연)를 연다.

피아니스트 정희연, 첼리스트 김태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봉락, 플루티스트 김재림씨 등이 출연해 오펜바흐의 '채클린의 눈물', 하이든의 피아노 3중주곡 '집시', 베토벤의 '로망스 2번'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평생교육원은 대건문화관에서 시민 대상 무료 클래식 강좌(선착순 100명)도 진행한다. '이건실 교수와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고전 및 종교음악 감상'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강좌는 오는 4월16일부터 7월21일(매주 화요일·오후 7시~9시)까지 15주간 진행된다.

목포대 명예교수인 피아니스트 이진실 교수가 진행하는 강좌는 첫주 '클래식의 정의와 감상법'을 시작으로 대표적 음악축제인 '베를린 발트뷔네', '비발디의 사계', '종교 음악' '흑인 영가' '역사적인 연주', '신년음악회' '모스 크바의 호로비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062-380-2210.

200석 규모의 호신대 예음홀도 작은 연주회를 열기에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자리한 대건문화관이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사진은 2월에 열린 피아니스트 이고르 그리신 연주회.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제공)

광주가톨릭대,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리모델링

4월 13일 부활연주회·15주 과정 무료 클래식 강좌 진행

호남신학대 예음홀·조선대 해오름관 등도 눈길

좋은 공간이다. 4년전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좌석수를 줄이는 대신 음향시설 등을 대폭 개선했다.

현재 매주 월요일 오후 열리고 있는 클래식 강좌 '풍당 클래식'은 김승일 교수의 강의와 매주 초청 음악가의 연주가 함께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다.

스타인웨이, 아마하 피아노를 갖추고 있어 연주자들에

게 인기가 높고, 마스터 클래스, 콩쿠르 장소 등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지난 2011년 9월 문을 연 1005석 규모의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은 주로 학교 행사용으로 사용되지만 일반 대관도 가능하다. 오는 4월20~21일에는 애니 뮤지컬 '로보카 폴리'가 공연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판페라 이순신, 토요일 공연 무대에

도립국악단, 내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이순신의 활약상을 웅대한 스케일로 담아낸 '판페라 이순신'이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은 '판페라 이순신' 주요 부분을 매달 한 차례 토요일 공연 무대에서 공연한다. 첫공연은 30일 오후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전통 판소리에 오페라적 요소를 가미한 '판페라 이순신'은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구 불이를 특화한 '설장구 놀이', 양반의 자명량대첩 위주로 구성, 남도민의 의로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모두 8장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공연으로 초연

됐다. 도립국악단원과 객원 연기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출연하는 웅대한 규모와 디지털 영상기법이 특징이다.

30일 공연에서는 이순신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고뇌하는 장면, 조선 수군과 왜군의 전투장면 등이 공연된다.

이날 토요일공연에서는 피리 3중주 '춤을 위한 메나리', 전라도 우도 농악 가락 중 장구 불이를 특화한 '설장구 놀이', 양반의 자명량대첩 위주로 구성, 남도민의 의로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모두 8장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공연으로 초연

색으로 빛나는 '남도'

광주미협, 다음달 10일까지 한국화 위상전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 전시실에서 '2013 광주한국화 위상전-새로운 의식과 발상의 전환'전을 개최한다.

광주지역 한국화작가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 윤성필, 이건우, 박설, 김윤영, 최기린아, 조강수, 조선아, 천명연씨 등 35명이 참석한다.

중견 작가들과 신진 작가들이 남도의 다양한 색채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문의 062-222-375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희연 작 '소식'

봄 흔드는 깊은 목소리

4월 2일 조규철 독창회

바리톤 조규철 독창회가 오는 4월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사계'의 삽입곡과 베르디의 마지막 오페라 '팔스타프',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아리아를 들려준다.

또 구스타프 말러의 '불쌍한 북치기 소년', 바버의 '정말 빛나는 이밤에' 등도 선사한다.

조씨는 전남대와 경희대를 거쳐 이탈리아 국립음악원 Guido Cantrilli를 졸업했으며 'VIGLIANO VIVA' 2위 입상, 'VERCELLI'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피가로의 결



활동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김한나씨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임기 3년으로

정기이사회 의결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임기가 3년으로 결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28일 오전 빛고을시민문화관 회의실에서 노성대 대표이사과 11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2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그동안 임기조항과 정년조항이 없었던 사무처장에 대해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문화재단은 인사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최

대한 빠른 시일내 공고를 내고 서류와 면접 등의 전형 절차를 거쳐 후임 사무처장을 뽑을 계획이다.

앞서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지역문화계는 신임 사무처장 선임의 공정성을 위해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개방형 초청 인사로 선임할 것, 지역 문화예술가를 대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전문가가 사무처장을 맡아 재단 조직 전반을 재정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재단 사무처장은 직원 채용 등의 문제로 불의를 빚은 전 사무처장이 사표를 제출, 공석 상태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작가회의 소설창작반 개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는 광주 북구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소설창작반을 개설한다.

16주 동안 매주 목요일(오후 7시~9시)에 진행될 이번 강의는 광주여대에 재직 중인 채희운 교수가 소설기초 이론과 문장 실습기초 교육을 병행한다. 수업은 수강생들

의 작품을 합평하고 개작하는 실기 위주로 진행된다.

강의 수강은 전화 후, 작품과 자기소개서를 메일(as7830@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 20만원. 문의 062-523-7830. 010-4137-4462.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013년 광동광역시 부활절 연합예배

생명의 빛 메스그리스도

일시 : 2013년 3월 31일 (주일) 새벽 5~6시
장소 : 광주시청 문화광장(상무지구)

주최 :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주관 : 2013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후원 : 광주CBS, 광주CTS, 광주극동방송, 광주교동방송, 미션21, 기독교호남신문, 기독교타임스,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장로교회협의회, 광주초교파장로연합회, 광주기독교연합회